

통일함성으로 하나된 범민족대회

3만여명 집결하여 비핵군축·연방제 결의

'91 남·북·해의 청년학생 축전 및 범민족대회'가 본교 노천극장을 중심으로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되었다. (관련기사 10면)

경향의 대회 원천봉쇄로 첫날인 12일에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했으나 13일 한국의국어대학교를 통해 학생들이 속속 집결하기 시작했다.

이날 오후7시부터는 '국토종단 대행진과 한반도 비핵지대화, 불가침선언 및 서명운동' 보고, 범민

족대회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가 개최되었다.

이어 8시30분부터 펼쳐진 '전국대학생통일노래한마당'에는 각 학교에서 예선전을 치른 21개팀이 참가하였는데 대상인 으뜸상은 전남대학교 사회대 노래패 한울림이 '통일아리랑'을 불러 수상하였으며 본교에서는 국문과 노래패 '공상각치우'가 '통일은 땀'로 단결상을 받았다.

또한 범민족대회 전야제날인

14일에는 1부 '통일 학생축전 정치회담 남북 결의대회'가 오전 8시부터 개최되었으며 2부에서는 안치환과 성남 노래마당의 공연, 김남주시인의 '한마리 검은 말이' 공연 등이 열렸다.

이날 오후 2시40분 노천극장에서 '판문점 진격부조 보고 및 국민대회 출정식'이 열렸으며 이날 오후 3시에는 한국의국어대와 본교 정문에서 판문점행 저지 규탄시위가 있었다.

본교 박성희(작곡·4)와 건국대 성용승군등을 포함한 북측 대표단 6백여명은 이날 판문점을 통해 남쪽으로 내려오려 했으나 실패하였으며 남측 환영단 46명도 판문점으로 향하였으나 경찰의 저지로 문산역에서 44명이 연행되었다.

16일에는 '조국의 자주와 평화적 통일을 위한 남북한 해외동포 청년학생 통일대축전' 폐막식을 끝으로 거의 모든 행사가 끝나고 연세대학교에서 나머지 부수 일정이 진행되었다.

회 출정식'이 열렸으며 이날 오후 3시에는 한국의국어대와 본교 정문에서 판문점행 저지 규탄시위가 있었다.

본교 박성희(작곡·4)와 건국대 성용승군등을 포함한 북측 대표단 6백여명은 이날 판문점을 통해 남쪽으로 내려오려 했으나 실패하였으며 남측 환영단 46명도 판문점으로 향하였으나 경찰의 저지로 문산역에서 44명이 연행되었다.

16일에는 '조국의 자주와 평화적 통일을 위한 남북한 해외동포 청년학생 통일대축전' 폐막식을 끝으로 거의 모든 행사가 끝나고 연세대학교에서 나머지 부수 일정이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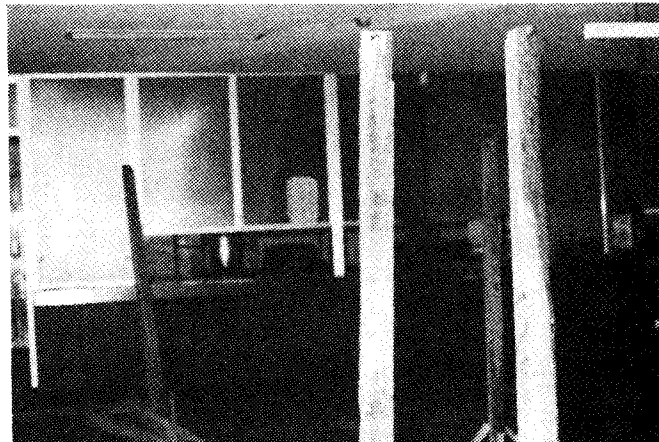
이날 오후 2시40분 노천극장에서 '판문점 진격부조 보고 및 국민대회 출정식'이 열렸으며 이날 오후 3시에는 한국의국어대와 본교 정문에서 판문점행 저지 규탄시위가 있었다.

본교 박성희(작곡·4)와 건국대 성용승군등을 포함한 북측 대표단 6백여명은 이날 판문점을 통해 남쪽으로 내려오려 했으나 실패하였으며 남측 환영단 46명도 판문점으로 향하였으나 경찰의 저지로 문산역에서 44명이 연행되었다.

16일에는 '조국의 자주와 평화적 통일을 위한 남북한 해외동포 청년학생 통일대축전' 폐막식을 끝으로 거의 모든 행사가 끝나고 연세대학교에서 나머지 부수 일정이 진행되었다.

동아리 공간부족 심화

동원 구조물설치로 학교측과 갈등



◇지난 23일 동아리연합회가 학생회관 4층 식당에 구조물을 설치한 모습

공간부족 해소를 위한 일환으로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가 무단으로 설치한 학생회관 4층 식당내 구조물로 인해 학교측과 마찰을 보이고 있다.

동연측은 현재 방이 없는 동아리(카피클럽, 경희사건연구회, 경영시스템)와 회의실, 전시실등으로 사용하고자 학생처와 논의를 했으나 거부당한후 일방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해 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 학생처를 비롯한 학교당국은 전체학생들을 위한 식당을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소수 학생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이런 행동을 한것에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동연측은 공간 부족 뿐만 아니라 4층 식당을 이용하는 학생수가 너무 적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데도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KIST학·연 합동과정 개설 대학원 내년 신입생 모집

본교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공동으로 '학·연 합동연구 석·박사 과정'을 개설했다.

본교 조영식 총장과 박원희 KIST원장은 지난 6월17일 본관 총장실에서 학·연 합동연구과정 약정서에 조인해 일반대학원내에 별도로 학·연 합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과정은 이학계 및 의·약학계 중 산업기술진흥과 공공복지증진을 위한 기술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세부전공 및 정원을 결정,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내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국평, 세미나 개최

제10회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학술 '신화해' 시대에 있어서 평화전략이 지난 6월 28-29일 양일간에 걸쳐 본관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국제평화연구소 주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의 제드 엘저 교수와 '신화해' 시대에 있어서 세계평화의 모색'등 세계 여러 저명인사의 주제 논문 발표가 있었다.

장기발전 계획 등 7개 항목 수원총학, 총장에 질의서

수원캠퍼스 총학생회 산하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는 방학기간 중인 지난7월 도서관과 정문의 조기완공등을 골자로 하는 총 7개항목의 수원캠퍼스 제반 문제에 관한 질의서를 총장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질의서에서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는 수원캠퍼스는 나아가야 할 목표점들이 뚜렷이 서있지 않아 기형적 발전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서관, 정문, 정문의 조기 설립, 교수충원, 중북학파에 관한문제, 기숙사증축, 전철 유치, 종합적인 발전계획의 수립

등 총7개항목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를 요구하는 사항이 주된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학교측에서는 이제까지 질의서에 대한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어 학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학원자주화 추진 위원회는 위시사항에 대한 논의와 과·단대연계로 조직건설 기부금 입학제도에 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7일 5시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각 단대 학자주체 연석회의를 갖을 예정이다.

양캠퍼스 학적과는 91학년도 2학기 추가등록기간 및 장학생 등록기간을 각각 21일부터 30일까지, 28일부터 31일동안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재학생은 신탁은행 전국본·지점, 장학생과 복학생은 신탁은행 위점등 지점에 등록을 하면 된다.

장학생의 등록절차는 위기간중 소속단과대학 교무실 또는 학생처에서 증서를 발급받아 경리과에 납부하면 되며 모범(근로)장학을 제외한 장학증서의 유효기간을 등록기간으로 간주하여 기간경과시에는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8월16일부터 20일까지 있었던 1차 등록에서는 서울 49.2% 수원 44.2% 전체 46.8%의 등록률을 보였다.

한편 양캠퍼스 교무과는 2학기 수강신청정정기간을 다음달 2일부터 6일까지로 확정, 발표했다.

이번 기간에 수강신청을 정정할 학생들은 각 학과 사무실에 비치된 수강신청정정대장을 확인한 후 서울은 본관 교무과에서, 수원은 각과 사무실에서 정정하면 되고 복학생의 경우 정정기간이 없다.

노조 임금 협상 타결

5% 정률인상 및 상여금 1백%등 합의

본교 노동조합은 방동 학교측과 협상을 통해 지난달 30일 1만 원 정률인상, 상여금 1백%지급등을 골자로 하는 91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관련기사 10면)

노동조합은 임금소위원회를 구성, 5차례의 협상을 거쳐 ▲5% 정률인상 ▲상여금 1백%인상지급 ▲1만원 정액인상 ▲운전직을 제외한 기능직에 2호봉 승급 ▲환경직에 수당 1만원인상 등에 합의했다.

이번에 합의된 임금협약은 내년2월28일까지 유효하다.

치, 운영할 예정이며, 컴퓨터의 기종은 삼보AT이다.

방송국 수습국원모집

29일까지 원서접수

수원캠퍼스 대학의소리 방송국은 제12기 수습국원을 모집한다. TV방송의 활성화를 위한 이번

모집은 TV방송요원(카메라 촬영, 디자인도안) PD, 아나운서등 3개 부문에 걸쳐 진행된다. 전형방법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1차로는 일반상식, 작문, 음성테스트 등이 오는 29일 오후 5시, 2차로는 면접이 30일 같은 시각 방송국에서 있을 예정이다.

체과대, 국선관 건립 반발 심화 학생측 수업거부등 강경대응 시사

체육과학대학 학생회는 1학기 중 국선관착공 실내체육관 방수공사중 학기초 등록금 협상시 타결된 사안에 대한 학교측의 실행이 전무하다고 판단 이번주부터 전면 수업거부등 다각적인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체과대 학생회는 지난 1학기 내내 국선관의 조기착공을 계속

적으로 건의했으나 번번히 연기되었으며 허가가 지난 6월15일 난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학생측에서는 학기내내 학교측이 학생을 기만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히고 이에따라 체과대 학생회는 사진전과 대자보를 통한 학생선전작업을 실시한 예정이며 운영위원회 단석투

쟁을 고려중이다.

이에대해 전기목(태권도·4) 체과대 학생회장은 "이와같은 현실을 살펴보면 어떻게 학생이 학교를 믿고 논의하겠느냐"고 말했으며 "체과대 운영위원만아니라 전 학우들과 더불어 학교측의 무책임한 행정을 폭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욕 한인회와 흑인지도자 30여명이 지난 6월20일 본교를 방문 재미한인교포와 흑인간의 우의증진문제를 토론했다.

이번 방문은 인종간의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이를 통한 한국인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실시됐다.

아찔한 순간



우리들의 환경개선을 위한임에도 공사장 앞에는 풋발, 위험표시 하나도 없다. 큰길 보다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세심한 노력이 아쉽다.
(지난22일 학생회관 도시가스공사중)
(김기태 記者)

우리민족, 우리내망

평양만 왜 못가!

갈라진 조국을 하나로 잇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은 계속될것입니다.

범민련은 통일로 가는 기관차입니다.

갈라져 살아온지 4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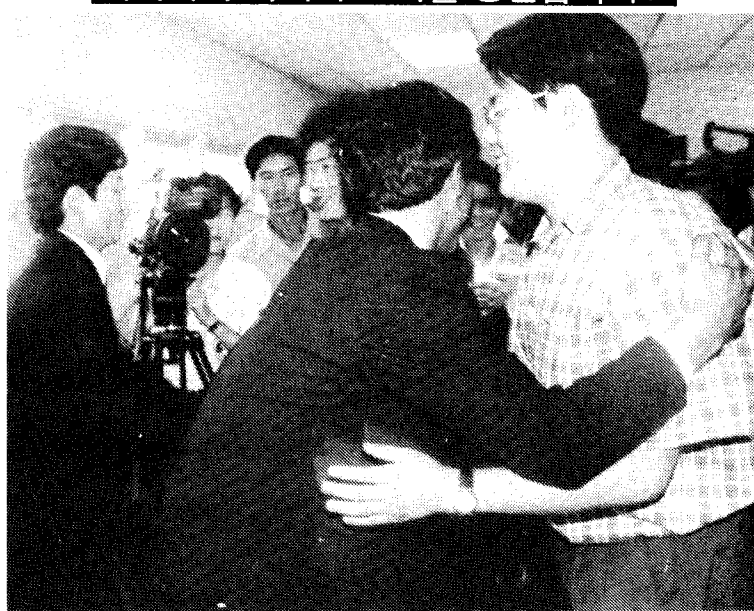
일부에서는 분단반세기을 거치면서 서로다른 체제와 문화속에서 이질감이 심화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만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우수한 민족입니다. 외세에 의해 갈라져 살아오는 동안 심화된 것은 서로간의 그리움이지요, 하나로 잇고자하는 통일열기입니다. 범민련은 체제와 사상의 차이를 떠나 민족의 숙원인 오로지 통일을 위해 결성된 순수한 민간조직의 상징기구입니다. 그래서 범민련은 통일로 가는 기관차라고 합니다.



통일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통일은 일부세력의 기득권 독실에 따라 좌우되며 안됩니다. 그리고 철저히 우리 민족 스스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지복합니다. 우리땅에 수천개의 핵무기를 설치해놓고 평화를 파괴하고, 자주를 유린하며 민족대결의식을 조장하는 세력은 바로 미국입니다. 이땅에서 미제가 떠나지 않는다면 조국통일은 요원할 뿐입니다.

기어이 우리대에 조국을 통일합시다!



새날을 여는 민족자주언론의 선봉
서울지역 대학신문기자연합